

가축 팔 때 예방접종 확인서 지참해야

7월 1일부터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 소·돼지·염소 반드시 예방접종

접종 안한 농가 살처분 보상금 차등 지급

7월 1일부터 소·돼지·염소를 사육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상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가축을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는 예방접종 확인서를 발급해 휴대해야 한다.

강원도는 구제역 예방접종과 거래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확인서 휴대를 의무화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구제역 예방접종 및 예방접종확인서 휴대 명령(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거나 예방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소·돼지·염소를

거래하거나 가축시장 또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사람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받게 된다.

도는 18개 시·군 및 축협 등 관련기관에 축산농가 및 조합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도록 당부하고, 농가 방문시 이런 내용을 최우선적으로 홍보·지도해 규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불미스러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영북 농어촌공사 수질오염 방제훈련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지사장 최돈환)는 지난달 28일 고성군 토성면 소재 학사평저수지에서 관계 기관 및 지역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수지 수질오염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대처 및 방제능력 향상을 위한 가상 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최광호 기자

어촌체험마을 행사 확대 계획

죽도 공동양식장 조성 종묘사업 확장... 치수미달 상품 놓아줘

어촌계 탐방 / 오호리어촌계

죽왕면 오호리 항포구에 위치한 오호리어촌계(계장 손영주, 61세)는 어업종사자 40명과 어선 40척으로 선외기, 유자망, 관리선, 정치망, 낚시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05년부터 어업종사자 모두가 자율관리 공동체를 만들어 전복·해삼 종묘 살포를 통해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10년엔 오호리 앞바다에 있는 죽도(대섬)에 공동양식장을 조성해 종묘사업을 확장하고, 3년의 금어기를 설정해 성어만 잡도록 하고 있다.

기존 방류된 전복·해삼 중 치수미달의 상품은 다시 바다에 놓아줘 자율공동체가 함께 상생할수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매월 1회 항포구 주변 바다대청소와 불가사리 제거 활동을 하고, 선적폐수를 방제통에 담아 폐수관리공단에 넘기는 등 환경오염방지를 위해서도 힘쓰고 있다.

오호리어촌계는 특히 지난해 처음 어촌체험마을 행사를 개최해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인근 바다에 가두리 그물을 설치해 오징어맨손잡기 체험 행사를 열고 관광객들에게 1인당 7천원의 입장료를 받아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상경기 활성화는 물론, 지역홍보에도 일조하고 있다.

또한 관광객에게 맨손으로 오징어를 잡는 재미와 더불어 잡은 오징어를 맛볼 수 있는 소중한 추억을 제공해 오호리 마을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었다.

실제로 행사가 끝난 후에도 오호리 마을이 큰 홍보가 돼 낚시꾼들이 많이 찾아와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손영주 계장은 이같은 성과로 인해 2005년 해양수산부장관 표창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2007년과 2010년에



손영주 오호리 어촌계장

강원도지사 표창,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손영주 계장은 "앞으로 인근 해변과 가까이 있는 호미섬을 활용해 갯배체험을 만들고, 오징어 맨손잡기 행사 등 어촌체험마을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종묘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시켜 자율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광연 기자

평택촌놈의 종목분석

하이닉스(000660)

지난 5월 하락 후 반등을 보이며 한숨 돌리는 코스피 시장이지만 여전히 불안 요소는 남아 있다.

그리스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외인들과 단기 투기성 자금은 여전히 시장을 흔들면서 추가 상승을 방해하고 있다. 거기에 현재 반등을 이끌고 있는 은행, 금융주도 주도주의 모습을 갖추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추세가 나오

는 개별 종목들의 흐름에 집중하기를 권한다. 최근 움직임이 좋은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탄력 있는 개별주도 좋지만 우량주 역시 나쁘지 않다.

업종과 테마를 불문하고 추세가 좋고 수급이 살아 있다면 결국 그 종목이 더 오르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우량주도 개별주도 시장의 반응이 완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일정 비중만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해야 한다.



정오영

평택촌놈투자전략연구소 대표

특히 외인들의 현물 매수세는 필수적이다. 현재 시장의 주도 세력이자 전체 시장의 열쇠를 쥐고 있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관점으로 오늘은 하이닉스(000660)를 보고자 한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하이닉스는 삼성전자에 이어 세계 2위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업체이다. 동사는 지난 긴 시간 동안 치킨게임 이겨내고 최근 반도체 가격 상승기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게다가 긴 시간 동안 조정을 거친 이후 최근 상승한 뒤 다시 하락했지만, 이는 추가 상승을 위한 움직임으로 판단한다.

특히 과거 어려운 시기에도 설비투자에 뒤처지지 않으려 노력했고 이런 노력은 앞으로 더 빛을 발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 세계적인 모바일 전자기기 판매 호조로 지속적인

반도체 시장 회복이 예상된다.

과거에 힘겨웠던 시기를 이겨내고 회복단계에 있는 기업 환경과 충분한 현금보유량은 기업 안정성 측면에서도 재평가 필요하다.

기술적으로도 지난 10년간 헝보의 흐름을 보였고 최근 급등 후 다시 제자리에 돌아와 있지만 지금의 가격대는 관심을 뒤 볼 만한 가격대로 판단된다.

-홈페이지 www.502.co.kr

(한글주소 : 평택촌놈)

-전화 031-651-5023

-이메일 502in@naver.com